

음악 뜨면 작품도 뜬다... 배경음악에 공들이는 기업들

플레이리스트, OST 발매로
드라마부터 IP 알리기 분주
네이버·카카오웹툰 OST
멜론차트 1위 기록 성과도
싸이월드, BGM 프로젝트로
원조 메타버스 재부활 홍보



지난 11일 종영한 플레이리스트의 웹드라마 블루버스터데이. /플레이리스트

기존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들을 수 있던 OST·BGM의 활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OST·BGM의 역할이 기존에는 작품의 분위기를 끌어 올려주는 배경음악에 그쳤다면 현재 IT 회사들은 보유 IP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알리는 용도로 OST·BGM을 사용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플레이리스트와 같은 웹드라마 기업부터 네이버웹툰·카카오웹툰과 같은 웹툰사들까지 이르기까지 OST 제작에 열을 내고 있다. 최근 일부 서비스를 재개한 싸이월드는 유명 가수들과 협업한 BGM을 발표하며 서비스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플레이리스트, OST 통해 IP 홍보

웹드라마 전문기업 플레이리스트는 매번 발매하는 웹드라마마다 OST를 꾸준히 발매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TV 드라마에 비해 제작비가 적은 웹드라마로써는 이례적인 일이다. 플레이리스트가 이처럼 OST에 힘을 쏟고 있는 건 2018년 방영한 웹드라마 '에이틴'의 영향이 크다. 드라마와 동명의 OST 세븐틴의 'A-TEEN'은 발매 직후 음원차트 10위권에 진입에 성공했고, 공개 다음

날에는 1위를 차지하며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또한 Mnet 2018 MAMA 시상식에서는 BEST OST상을 수상했다.

주목할 점은 OST가 흥행하면서 드라마의 인기도 같이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플레이리스트는 드라마 뿐만 아니라 OST에도 힘을 주며 드라마 IP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블루버스터데이'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총 4개의 OST가 공개됐다. 그중 Colde, 레드벨벳 예리가 각각 부른 'It's You'는 오리지널 곡이다.

◆웹툰사들, 웹툰과 OST 연계한 IP 강화

네이버웹툰도 TOON STUDIO를 통해 일부 작품의 OST를 발표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건 지난 7월27일 완결된 '바른연애 길잡이'이다. 바른연애 길잡이는 OST만 15곡을 발표했다. 그중 허각이 부른 '고백'의 경우 멜론차트 1



'바른연애 길잡이'는 OST만 15곡을 발표했다. /강준혁기자

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현재 연재 중인 '낮에 뜨는 달'의 OST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4곡을 발표했다.

카카오웹툰도 꾸준히 웹툰OST를 발매하고 있다. '취향저격 그녀'의 경우엔 현재까지 OST 음원 9개를 선보이며 웹툰 IP를 알리는데 성공했다. 취향저격 그녀는 현재 시즌3까지 제작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해엔 래퍼 비와이와 '이태원 클라쓰' OST '새로이'를 발매해 눈길을 모았다. 주목할 점은 이태원 클라쓰의 경우엔 이미 드라마도 발매됐고 드라마 OST도 이미 출시가 됐지만 웹툰 자체적으로 따로 OST를 발매했다는 점이다.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웹툰사들도 OST를 발매하고 있다. 리디는 소유와 협업한 '티파니에서 모닝 키

스를'의 OST 'Breath' 지난 8일 공개했다. 리디는 이후 다른 테마곡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진코믹스도 지난 28일 가수 안예은과의 콜라보를 통해 웹툰 '야화점'의 OST를 공개했다.

◆싸이월드, 리메이크 BGM 발표

아직 서비스 재개 전인 싸이월드는 과거 유명했던 싸이월드 BGM들을 리메이크하는 '싸이월드 BGM 2021'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원조 메타버스의 '재부활'을 홍보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OST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싸이월드의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나서고 있다.

'싸이월드 BGM 2021'은 소유의 'Y (Please Tell Me Why)'를 시작으로 기프트(GIFT)의 '기억을 걷는 시간', 가호의 'Officially Missing You', 에일리의 '눈의 꽃', 정승환의 '애인 있어



싸이월드는 과거 유명 BGM들을 리메이크하는 싸이월드 BGM 2021'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싸이월드Z

요', 조지의 '고칠게', 하성운·편치의 '자니', 황치열의 '잔소리'까지 총 8곡을 발매했다.

지난 3일에는 매드클라운과 이해리가 가창자로 참여한 '싸이월드 BGM 2021'의 아홉 번째 리메이크 음원 '수취인불명'을 공개했다.

싸이월드는 이를 통해 자사의 강점인 감성적인 SNS의 면모도 강화한다. 싸이월드 측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2021년을 대표하는 음원강자들이 싸이월드 BGM을 다시 부르는 추억소환 프로젝트"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음원을 통한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 IT 관계자는 "음원을 통한 홍보는 다른 창구에 비해 비교적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이 시도하는 것 같다"며, "OST나 BGM이 흥행한다면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홍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LGU+, 보안 걱정없는 양자내성암호시대 선도

크립토크와 'PQC 기술' 설명회 통신인프라 전반 보안 강화 추진

LG유플러스가 양자내성암호(PQC) 시대를 이끌기 위해 속도를 낸다.

LG유플러스는 암호기술 전문기업 크립토크와 함께 지난 10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PQC 기술 및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 풀어나는 데도 수십억년이 걸리는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키 교환/데이터 암호·복호화/

무결성 인증 등 핵심 보안요소에 적용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만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크립토크의 격자문제 기반 암호알고리즘은 201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국내 표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천정희 크립토크 대표는 양자컴퓨터의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양자내성암호가 필요한 이유와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만이 안전하게 인증된 통신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구성철 L

G유플러스 유선사업담당은 디지털뉴딜사업의 일환으로 LG유플러스가 공공, 민간분야전용회선에 양자내성암호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크립토크에 통신업계 최초로 지분 투자를 단행해 양자내성암호 기술력을 확보한 바 있다. 크립토크는 서울대학교 산업수학센터장인 천정희 수리과학부 교수가 설립한 암호기술기업이며, 양자내성암호와 암호화된 상태에서 원본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동형암호 등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강준혁 기자

컴투스, CG·VFX 전문사 품고 '종합 콘텐츠 기업' 도약 본격화

메타버스전문 위지웍스튜디오 인수 영화·금융 등 콘텐츠 밸류체인 구축

컴투스가 최근 컴퓨터그래픽·시각특수효과(CG·VFX) 전문사 '위지웍스튜디오'를 인수하고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 도약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컴투스는 게임을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유망 기업의 역량을 자사 경쟁력으로 확보하고, 컴투스만의 강력한 콘텐츠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컴투스는 최근대표적인 메타버스 전문 기업인 위지웍스튜디오의 지분 38.11%를 취득하고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했다. 지난 3월 획득한 지분 13.78%에 이어, 1607억원으로 보통주 약 1127만주를 추가로 획득했다.

콘텐츠 분야에 대한 컴투스의 적극적 투자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넓게 추진됐다. 2019년부터 웹소설, 웹툰, 코믹스 등 텍스트 기반의 원천 IP부터 영상, 메타버스, 게임, 금융에 이르는 여러 기업들에 투자하며, 컴투스만의 콘텐츠 밸류체인을 구축해 왔다. 하나의 IP(지식재산권)를 여러 콘텐츠로 전환하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번 위지웍 인수를 통해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이라는 컴투스의 비전을



한층 가시화했다. CG·VFX 기술로 넷플릭스 '승리호' 등 국내외 다양한 영화, 드라마 등을 만들어온 위지웍은 자체 제작 역량뿐만 아니라, 수년간 적극적인 자회사 인수로 IP 제작부터 배급, 유통, 공연, 음원, 전시 컨벤션 등 컴투스가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독보적 원스톱 제작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영화 부문에서 인스터, 메리크리스마스, 드라마 분야에서는 래몽래인, 에이치월드픽쳐스, 이미지나인컴즈 등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르물 출판사 고즈닉이엔티, 애니메이션 제작사 골드플레이밍 등 10여개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사를 통해 폭넓은 IP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IT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는 메타버스 시장에도 진출해 주목받고 있다. 이달 상장한 자회사 엔피는 업계 최고 수준의 XR(가상융합현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과 더불어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기술을 토대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강준혁 기자

KT, 블록체인·AI로 '지역화폐 깡' 단속

KT가블록체인·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로 지역화폐 이상거래를 잡는다.

KT는 지역화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로 안정적 운영 및 이상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KT는 2019년부터 'KT 착한페이'로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KT 착한페이는 블록체인 및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과 카드 및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선할인, 캐시백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소비도 활성화 되고 있다.

반면에 지역화폐를 활용한 불법 판매, 환전 등의 이상거래 방지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매년 지역화폐 구입에 따른 혜택을 취한 후 불법으로 다시 현금화 하는 '지역화폐 깡'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KT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화폐의 이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했다. 기존 시스템은 관리자가 사전 정의한 규칙에 대해서만 탐지 및 통보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는 ▲머신러닝 기반 소비자 행동 패턴의 이상거래 조기 탐지 ▲지역화폐 유통과정 투명화 등이 주요 특징이다. /강준혁 기자